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들 저는 2019년도 전문인력양성교육을 마친 권용빈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타년도와는 다르게 암호 프리미티브를 설계하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이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암호분석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보안연구소(국보연)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주제였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지원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암호 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집중이 되어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활용에 관련된 만큼 컴퓨터학과, 사이버 보안학과, 머신러닝 학과 등 다양한 과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0년도 그 이후년도 주제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아마 이렇게 활용 분야로 계속 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전문인력양성교육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국보연에서 준비하는 양질의 수업입니다. 매 수업에 많은 노력을 들이신 것이 보이며 과제와 함께 공부하다보면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육을 과정 초기에 듣기를 추천합니다. 암호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좋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주제를 잡기 어렵거나 아니면 암호라는 분야가 높고 뿌옇게 보일 시기인 초기에 들으시면 감을 잡기에 수월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제 역시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드시기 때문에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부할 부분이 많습니다. 채점 또한 긴 시간을 들여서 하며 피드백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물론 교수님이 다른 학교와 과제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다른 학교 석사생, 박사생들과 종종 교류가 있으시겠지만 이외에는 생각보다 다른 학교 학우들과 채널을 형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력양성교육에는 정말 다양한 학교의 석박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관계를 잘 형성해 놓는다면 조언을 구하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공개키 암호를 설계하고 구현하여 국제학술지에 제출하여 게재에 성공하였는데요. 혼자서는 생각도 못할 경험을 해본 셈입니다. 물론, 우리 연구실 내에서도 연구원들과 함께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지만 말씀드렸듯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협업(암호의 설계, 안정성에 대한 수학적 증명, 부채널 분석에 대한 저항성 검증, 구현을 한 연구실에서 모두 찾기는 어려우니까요)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술한 이유로 저는 인력양성과정을 꼭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일정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해주실 것이며 열심히 하신다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도 많은 것(커뮤니케이션, 비전, 경험)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저에게 메일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결정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CryptoCraft 연구실 후배님들 부디 좋은 조건에 적응 잘하셔서 기회를 잘 살려 교수님 밑에서 학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